



5·18 모독에 분노한 광주 ... “망언 3인방 제명하라”

금남로서 광주시민결기대회
자유한국당 사죄 요구
5·18외곡 뿌리뽑기 행동 나서

‘자유한국당 사죄하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제명하라’

지난 주말 광주시 동구 금남로가 39년 전 오월 광주처벌 뜨겁게 타올랐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망언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이 5·18 외곡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5·18역사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범시민결기대회’가 지난 16일 금남로 전일빌딩 앞 ‘차 없는 거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5·18 망언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모여 지난 15일 출범한 ‘자유한국당 3인 망언 의원 퇴출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한 광주범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다.

이날 결기대회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한 5월 단체, 시민 사회단체, 광주시민 등 3000여명(주최측 추산 1만명)이 참석했다. 5월 항쟁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아들 호재씨와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김사복씨의 아들 승필씨도 광주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박시영 제39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시작해 5·18 외곡을 다룬 영상 상영, 자유한국당 규탄 주제 발언, 공연 등이 이어졌다.

이용섭 시장은 대회사에서 “5·18이 평평



80년 그날처럼 뜨거운 금남로 1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만원의 5·18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되고 왜곡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을 자유한국당과 국회에서 제명하고, 검찰과 법원은 망언자들에게 고소·고발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리하라”며 “5·18역사왜곡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국회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인 ‘5·18외곡 처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후식 5·18민중항쟁운동본부상자회장도 단상에 올라 “5·18을 부정하는 자유한국당과 지만원이 나라의 모든 법률·제도를 부정하는 반민주세력이자 반국가 집단”이라며 “한국당은 스스로 망언 국회의원 제명에 나서고, 역사관이 검증된 5·18 진상조사위원을 즉각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등 의원 3명과 지만원씨의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와 함께 전일빌딩 ‘금남공원-광주세무서(왕복 2km 구간)’ 행진로 마무리됐다.

시민운동본부는 오는 23일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 또는 국회 앞에서 결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회의장단 모임인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 망언’ 규탄 대회를 열었다. 송한준(경기도의회 의장) 협의회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있었

던 5·18 모독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자리에 모였다”며 “망언에 5·18 원혼이 절규하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협의회장은 “1980년 5월 군부가 저지른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암매장 등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역사를 부정하고 모독한 당사자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과 민주영령 앞에 사죄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의원 23명도 지난 14일 국회를 찾아 성명서를 전달하고 망언 국회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5·18 현장·호남언론 모태 전일빌딩 새롭게 태어난다

복합문화공간 내년 3월 개관

스카이라인지 등을 갖춘 시민다목적홀로 조성한다.

5·18민주화운동의 생생한 현장이었던 ‘호남의 상징’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이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특히 광주일보 옛 사옥이었던 전일빌딩은 1980년 5월 신군부의 헬기 사격에 의한 총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최근 불거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광주시는 18일 오전 10시 50분 금남로 전일빌딩 옥상에서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자원화’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

전일빌딩은 1968년 준공된 이후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증·개축이 이뤄진 노후 건물이다. 지하 1층, 지상 10층에 전체 면적은 1만9321㎡다. 전일빌딩 일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 분수대 인근과 함께 ‘항쟁의 현장’이었고, 전일빌딩 10층 등지에는 아직도 5·18 당시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이는 수백 개의 총탄 흔적이 남아 있는 5·18의 상징적인 장소다.

광주시는 우선 이번 리모델링에서 건물 안전을 보장하고 내진보강 공사까지 할 예정이다. 이 공사는 국비 130억원과 시비 354억원 등 모두 484억원이 들어간다. 광주시는 현재 국비 120억원 등 409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오는 3월 추경에서 나머지 75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총탄 흔적이 발견된 9~10층을 ‘아시아문화전당 관광자원화 구역’으로 정하고 5·18민주화운동 전시관, 총탄 흔적 특화, 5·18 관련 자료실, 편의시설 등을 배치한다. 8층은 다목적회의실과

과거남봉도서관이 있었던 전일빌딩의 문화·교육적 의미를 살려 2·3층에는 전 자료실을 조성하고, 1·2층에는 남도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는 남도관광 홍보마케팅 센터가 들어선다.

이 밖에도 청년·비정규직구 공간, 시민 생활문화센터, 남도관광 홍보마케팅센터 등 시민참여 공간으로 꾸민다. 1층 로비에 전일빌딩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역사관이 들어선다. 옥상은 무등산을 비롯한 광주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든다.

광주시는 5·18 40주년을 앞둔 내년 3월 새로운 전일빌딩을 개관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외인 기자들의 취재현장이었고, 호남의 대표 언론의 역사가 남아 있는 ‘전일빌딩에서 경험하는 광주의 생생한 기록과 보고’를 리모델링을 통해 표현할 것”이라며 “전시 스토리는 프롤로그, 증거(헬기사격의 증거를 밝히다), 목격(1980년 5월 현장을 취재하다), 왜곡(왜곡과 유언비어를 추적하다), 기록(오월의 기록을 살펴보다), 진실(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다), 에필로그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독립된 여러 개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유니버스식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북·미, 2차 정상회담 앞두고 의제·의전 실무협상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미가 이번 회담의 성과를 좌우할 의제·의전 관련 실무협상을 개최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미국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 준비에 2개 팀이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한 팀이 주말에 아시아에 파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난 16일 정상회담이 열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 또 김 부장의 카운터파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 대니얼 윌시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지난 15일 하노이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하노이에서 북미 간 의전 관련 실무조율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티본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북특별대표가 마주할 전망이다.

양측은 특히 북한 측의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과 미국 측의 상용 조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1차 정상회담(싱가포르) 합의의 이행 조치들을 엮어 2차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만드는 작업에 주력할 전망이다.

비건 대표는 최근 한국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번 실무협상에서는 합의문안 작성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전두환 이번엔 광주법정 꼭 세운다
검찰, 구인장 집행 대책 마련 분주 ▶6면

김여를 기자 KIA 오키나와 캠프 가다
야간 자율 훈련 ‘달빛 스윙’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고귀한 적송의 생명력으로
피부, 새로운 힘을 갖다**

NEW 설화수 진설크림

영원한 아름다움을 생각해본 적 있나요?
모두가 변치 않기를 바랄 때, 설화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지는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젊음을 지켜내는 적송의 강인한 힘과
창정 자연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은 신양삼으로 완성한 진설크림—
이제, 매일 더 새롭게 아름다워지는 피부의 힘을 가지세요

Sulwhasoo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르메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